



시내 불빛과 집어등이 연출하는 야경 4일 밤 제주시 오라동에서 바라본 제주시내 야경이 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 집어등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각 마을에 청년위한 특색 공간 필요”

**‘제주포럼 2020’ 개막 첫 날 청년의 날 지정 세션 진행**  
**“만 19~24세 진출 두드러져”... 열악한 정주여건 지적**

제주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도내 각 마을에 거점형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특색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팬데믹과 인본안보’를 주제로 내건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0(이하 제15회 제주포럼)이 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포럼 첫날은 ‘제주포럼 청년의 날’로 지정,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 관련기사 2면

청년, 제주와의 상생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은 제3의 공간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카페 등의 공간이 아닌, 동네 이상의 지역 공간을 의미한다”면서 “제주지역에도 탐동, 이종섭거리, 대학로 등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가치에 비하면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어서와, 정주는 처음이지?’ 이어 “제주에 청년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 도시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접근성을 보완한다면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주 청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제주에서는 만19세~24세 진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주열 풍으로 제주를 찾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만25~34세 이주 청년들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청년 유출 원인으로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폐쇄적인 권당문화, 부족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청년교류공간 등을 생각해 보았다”면서 “청년들이 문제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기대하는 자연환경과 여유 있는 삶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션 막바지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세션장을 깜짝 방문해 청년에게 세계화에 따른 청년의 마음 가진 중요성을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경쟁이 심하다 보니 청년들의 가슴에는 열정이 강하다 못해 터질만큼 가득차 있다”면서 “그러나 열정만 강하다보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정과 동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회 쇼핑아울렛 추진·트램 도입 ‘눈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쇼핑아울렛 및 도심순환형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이 포함돼 정상 추진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자유도시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5일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첫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연구단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8대 전략 추진계획(안) 제시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존 계획 추진성과 평가단을 구성해 39개 핵심사업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평가단은 지속(보완)추진 29개 사업(핵심사업 8개, 부문계획 14개, 기타계획 정책 관리 7개), 중단사업 5개, 완료 사업 2개, 기타 사업 3개 등으로 분류했다.

이 중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울렛 ▷제주웰스케이타운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2첨단기술과학단지 등 8개 사업이 지속(보완)추진 핵심사업으로 포함됐다. 대부분 1·2차(수정) 계획에서 미추진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들이다.

특히 연구단은 ▷도심순환형 신교통수단(지역재생 위해 트램 도입 공항-연동-원도심 주행) ▷스마트 환승허브 사업 ▷영어교육도시 확대



5일 제주관광공사에서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연구단 관계자가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분산형 에너지사업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R-2 Back 사업(그린자원순환종합단지) ▷국제수준 미술관 유치 사업 ▷국제수준 음악당 건립사업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신규 핵심사업(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핵심사업(안)은 앞으로 담당 부서 등과 지속 추진 필요성 검토를 비롯 재원확보 및 해결 가능성 등의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과제로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거나 진척없는 사업들이 핵심사업(안)으로 도출돼 최종 계획안 포함 여부와 함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코로나 직격탄 관광업계 숨통 트일까 도, 185개 업체에 272억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진 대상 총 185개 업체·27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한 결과 총 199건·289억원이 신청 접수된 바 있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97개 업체·260억원, 개·보수자금 2개 업체·29억원이다.

심의 결과 경영안정자금분야는 접

수된 197개 업체·260억원 중 타 기금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14개 업체·46억원이 제외돼 최종 183개 업체·243억원(신청액 대비 84.08%)을 확정했다. 또 시설 개·보수자금 2개 업체·29억원은 특이사항이 없어 전액을 융자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융자 금액 한도 내에서 상반기 대출 실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융자 추천했다. 특히 이번 융자 추천은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등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12월 31일까지, 시설 개·보수 자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 도, 이달부터 직접수행

이달 중순부터 제주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한 전산시설과 게임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수행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 수행에 대한 주체를 제주도지사로 변경, 직접 검사를 시행할 방침

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지노 전산시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게임기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위탁·지정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수도권에 있어 관련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비용면에서도 검사 수수료 외에 항공료가 포함된 출장비 등이 부과돼 도의 카지노보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오은지기자

www.booyoungyouth.com

### Jeju Booyoung Youth Center

##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학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